

## “혁신·민생에 주력 ... 기필코 정권 재창출하겠다”

민주당 대선 후보 9명  
광주일보 서면 인터뷰

인공지능·에너지 산업 특성화  
강력한 지방분권·메가시티 등  
다양한 호남 발전 전략도 제시

오는 11일로 예정된 예비경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4일 광주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각기 경쟁 승리를 자신하면서 민주당이 혁신과 민생에 주력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정권재창출의 키워드로 쇄신, 경쟁, 혁신, 실용, 민생 등의 단어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호남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4.5면〉

우선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 가능성과 관련, 추미애 후보는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이뤄진다면 국민적 지지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정권재창출을 자신했다. 이광재 후보는 이념의 진보가 아닌 유능한 진보, 실용의 진보 목소리가 더 커져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중심의 개혁 의제를 과감하게 처리하는 유능함을 입증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성장과 반성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열어갈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후보는 치열한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면접'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경쟁 등 역동적 경선을 통해 변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용진 후보는 새로운 인물 간의 경쟁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며, 양승조 후보는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문순 후보는 철저한 혁신과 시원한 대안 정책 제시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내놨고 김두관 후보는 올해 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진보 진영이 결집한다면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추미애 후보는 광주·나주·목포, 여수·순천·광양을 묶는 메가시티 구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드론·우주산업,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후보는 전남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광주는 AI(인공지능) 산업을 특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를 구축하고 한국판 그린 뉴딜의 첨병으로 미래 호남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세균 후

보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낙연 후보는 한국전력을 플랫폼 기업으로 광주·전남을 에너지경제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강력한 지역분권이 호남을 포함한 모든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을 내놨으며, 충남지사인 양승조 후보는 호남-충청을 아우르는 '신남부 경제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지사인 최문순 후보는 강호(강원-호남)축 교통망을 구축과 함께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확실한 균형발전,

강력한 분권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의 AI와 전남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호남 발전 전략에 대한 구체성이 크게 부족,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적극적 공조를 통해 호남의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이슈로 키워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경선 후보들 '호남 표심 잡기' 총력

이재명 지사 "5·18로 다시 태어나, 호남은 사회적 어머니"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 전일빌딩서 광주시민과 대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 2일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남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을 함께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경기 상생협력회의'를 위해 전남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은 저에게 사회적 어머니 같은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에게 호남의 의미는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개인 인생사로 보면 대학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영달을 꿈꿨는데, 5·18에 대한 실상을 알고 제 삶을 통째로 바꾸게 됐다. 저를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5·18이다"고 했다. 또한 "호남은 대한민국의 개혁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핵심지역이자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아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거침없이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이날

오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선 "사법귀정"이라며 "이제야 상황이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들끼리 당신들은 책임없는 것으로 각서 썼다고 (형사) 책임을 면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며 "그 과정에서 (공범들은 처벌받는데) 반해 윤 전 총장 장모가 처벌받지 않는 등)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에 2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의 적통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홀에서 '광주시민과 당원과 대화'에서 라난히 참석해 정권 재창출 의지 및 포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

이는 것"에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후보 단일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덕성이 없으면 지도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저는 도덕성으로는 상위 1%에 들 자신이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뜨겁게 사랑하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하는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그는 또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도시를 만들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대학교는 치과대학과 첨단 치과산업 관련 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경제연계를 창출하겠다"면서 지방대학의 위기 대책도 내놓았다. 한편 정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당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양 측이 향후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반이재명 연대'의 결속을 다지며 공동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 해석이 나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 광주·전남 이번 주 내내 장맛비 오늘 30~80mm ... 밤부터 돌풍·천둥·번개

광주와 전남지역에 5일까지 최대 80mm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과 휴일(3~4일) 곳에 따라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지방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수시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정체(장마)전선의 영향으로 4일 오후 전남 남해안과 도서 지역에 내리는 비가 5일 오전부터 광주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남 남해 섬지역을 중심으로 5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광주기상청은 강조했다. 5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80mm.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상됐다. 광주기상청은 특히 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5일 밤부터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

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까지 광주·전남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15m 이상으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여객기, 해상 선박은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은 일요일인 11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다"며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저기압의 발달 정도가 달라져 예상 강수량 변동성이 큰 날이 많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 청년일기!

‘청년일기’란? | 우수 지역기업이 서울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찾은 일과기회 채용된 청년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입니다.  
기업모집 문의 | 서울시지역상생경제과 (02-2133-4453,4454)